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지킨다

전북교육청, 올해 노후 식생활관 개선 등에 총 575억원 예산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급식기구 시설 확충을 위해 57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사업을 포함한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노후화된 급식기구 교체, 전기식 국술과 오븐 등 인덕션 기구 보급 확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45개교의 개선을 완료했고, 107개교에서 개선 사업이 진

행 중이다. 올해는 연속 사업 59개교, 신규 사업 61개교 등 모두 120개 학교에 총 3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2027년까지 555개교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급식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69개교에 113대의 전기식 국술, 오븐 등 인덕션 기구 지원비로 14억1,800여 억원을 편성해 에너지 효율성과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소독기, 살균보관고, 냉난방기 등 급식 위생 및 안전한 급식환경에 필요한 기구 지원에도 7억7,560여만원이 투입

된다. 조리실무사의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채절단기·탈피기·애벌세척기·세미기 구입 등에 3억780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시설 및 급식 업무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으로도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으로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메이커스페이스 중기부 연차 평가 '최우수'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에서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창작 및 창업에 지원하는 개방형 제작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적 제작 문화 확산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는 3D프린터, 목공장비, 레이저커파터 등 다양한 제조 장비를 활용해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여러 기관과 협력해 진행한 공방 활동을 통해 창의적 제작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평가를 받았다.



지난 21일 전주대학교를 방문한 시안 키엔 펑(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이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단, 전주대 방문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 간담회

지난 21일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이 전주대학교를 찾았다. 이는 전주시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시안 키엔 펑(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해 윤찬영 대외부총장, 심영국 국제교류원장, 호텔경영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또 싱가포르 측에서는 시안 키엔 펑(SEAH KIAN PENG) 국회의장과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비롯한 주요 국회의원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경험을 공유하고, 전주대학교와 싱가포르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호텔경영학과는 2006년 2명의 해외 취업업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해외 취업(인턴십 포함) 누적 인원이 377명에 이른다. 이 중 70% 이상이 싱가포르에 취업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은 전주대 학생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국제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싱가포르 국회의장단 시안 키엔 펑(SEAH KIAN PENG)은 “싱가포르는 교육과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며 “전주대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교육,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대가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더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진배 총장은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의 방문은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장단 방문을 계기로 전주대학교와 싱가포르 간 해외 인턴십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학부를 신설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멘토-멘티 상호대면의 날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2025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멘토-멘티 상호대면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과 1:1로 매칭된 멘토가 첫 대면하는 자리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멘토 컨설팅은 6~7급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K-에듀파인 예산 편성, 지출, 세입 등 시스템 처리 과정을 포함해 회계 전반에 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특히 지출, 계약, 보수, 퇴직금 처리 등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하면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산업안전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학교 행정실장 및 교육기관 산업안전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연수 내용은 △위험성평가 △학교(기관) 산업재해 사례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이다. 특히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교(학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올해부터는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한 정기 위험성평가 예시안활용 방법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대,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거행 총 3756명 학위 수여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졸업생을 축하해주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21일 삼성문화관에서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학위수여식은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분부 보직자 및 학무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졸업생 및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본부에서 삼성문화회관까지 이어진 학사행렬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양오봉 총장의 졸업식사와 서거석 교육감, 이성운 국회의원, 최병선 총동창회장 등의 외빈 축사, 그리고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양 총장은 이날 180명의 박사과 633명의 석사, 2,943명의 학사 등 모두 3,756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김서은 학생(사범대)을 비롯한 122명의 학생이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고, 핵심인재상에는 박선진 학생(환생대) 등 63명,

우수연구상에는 남현택 학생(공대) 등 3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오봉 총장은 “오늘 졸업식은 여러분이 세계 역사의 무대에 오르는 첫날이다. 지금은 조연일지 모르지만, 세계인이 열광하는 주연으로 성장하는 그날을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총장은 “전북대는 지역거점대학을 넘어 세계거점대학으로 비상하고 있다. Global Top100 대학을 목표로 담대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전대 동문으로서 지역과 세계무대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움의 끈 놓지 않은 어르신들께 존경의 박수”

전북교육청, 초·중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수료식... 중학 35명 등 총 129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2층 강당에서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학력이나 문해 능력이 낮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과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도내 6개 지역 10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129명(초등 94명, 중학 35명)이 학력인정서를 받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최고령 졸업자인 90세의 이필순 어르신은 “못 배운 것이 한이었는데 이제는 영어도 읽을 줄도 알고, 평생 못 입어 본 교복도 입고, 졸업식도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기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끊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영광스런 졸업을 하게 된

129명의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군산학생교육문화관과 전주주부평생학교, 익산행복학교 등 도내 11개 시·군, 20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북교육청 평생교육담당(239-3452)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신년교례회서 새 도약 다짐

진성준 국회의원 등 '동문대상' 최병선 회장, 향후 계획 밝혀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는 지난 20일 진수당 개교77주년 기념홀에서 동문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 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신년교례회는 최병선 총동창회장과 양오봉 총장, 두재균·이남호 전임 총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동문들과 시·군 단체인, 김동근 전북대 교수회장 등 200여 명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와 김은덕·안호영 국회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은 동영상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올해 동문대상은 천광석 전북대 총동창회 고문, 김경호 사경장, 진성준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천광석 고문은 28~29대 전북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간의 화합과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지난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개교77주년 기념홀에서 전북대 총동창회 동문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양오봉 총장과 최병선 총동창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받았다. 김경호 사경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사경분야 국내 최고 장인으로 전북대학교를 널리 알렸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 시 약학대학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최병선 회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립준비

청년 장학금 △해외체재장학금의 확대 지급 △총동창회 수사업 진행 △총동창회 협력기관 할인사업 △재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날 양오봉 총장도 축사를 통해 “모교의 발전은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동문들이 어디에서든 전북대란 이름만 들어도 자긍심이 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